

## 제 6 장 (6:1-7:14) 사도 행전 Tape #8095

우리의 성경 6 장을 펴봅시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살이 보고 가면서, 그들이 공동기금으로 공동생활이 되도록 그들의 소유를 팔아 돈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에 관한 초대교회의 운동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실행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었는지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공부에서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드림에 있어, 겉치레로 행했다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일부를 뒤로 빼돌려 놓는 일에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뒤로 빼돌린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위선이었는데, 이는 실상 뒤로 감추고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겉치레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도록 요구받지 않았습니니다. 돈을 가져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그것들 중 일부를 뒤로 빼돌리고선 마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위장했으므로, 사람을 속이려 했고, 성령님을 속이려 했으며,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6 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복지를 나누는 실행으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또 다른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나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수를 추가하신다는 말을 읽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교회에 그 수를 빼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산술은 재미가 있습니다. 종종 그 분은 빼시기도 하며, 종종 우리는 축복된 감법을 경험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주님께서 공제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감법이 크게 수를 늘어나게 하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몸을 세우는데 일하심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크게 수를 더하실 때 항상 흥분이 됩니다.)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지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것은 교회의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주의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문화를 따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가 세계 전반에 걸쳐 그리스 문화를 남겼음을 당신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 거의 우주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문화를 넘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따라 살던 자들과 히브리 문화에 따라 살던, 코셔(Kosher)라고 말해지는 자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 중에 얼마의 사람이 느낀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문화에 따라 살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교회가 복지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 공평한 분배를 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과부들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기에, 이 문제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2 절 “열두 사도가 자기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시 중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여기서 그들은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사역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에서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도록 사역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사도들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과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중압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사역 중에

육체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 발전된 문제들이며, 그것은 바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이 베푸는 것이 더 활발한 역할을 하도록 사도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오! 라고 대답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계속되는 세월동안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온 것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는 심부름하는 소년이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때로는 택시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경우들이 있어, 사람들이 방문하여 목사가 일하는 것을 보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다른 일을 돌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교회의 다른 역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에 부름 받은 자들에게는 말씀의 사역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상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시간을 너무 빼앗기 때문이고, 결국. 당신의 시간이 그것에 붙잡힌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만나기를 요구하곤 했기 때문에, 나를 보기 원했던 사람들의 편의를 나는 다 도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버리는 것을 그리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를 듣기 위하여 거기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당신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가를 확인하길 원해서, 그들은 당신에게 10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할 것인데, 당신이 비록 그것을 처음 알았을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여 가르쳐야 할 저녁 성경공부 시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었음을 깨닫게 되자, 내가 생각해야 할 전체의 내용이 엉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의 끝을 찾아야 기도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저녁 설교의 준비를 완료하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듯이, 나는 어쨌든 상담자로서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설교단에 나왔다면, 완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전체 회중의 시간을 강탈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행했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으며, 끔찍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으로, 그것은 당신을 진짜 격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재앙과 같은 것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사역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로 부르셨던 것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베푼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3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세 가지 요구, 아니 네 가지라고 보지만, 이것들이 필수적인 요구조건은 아닌데, 평판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이것은 먼저 나에게 흥미로운 것으로, 이것이 영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한 요구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정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물건들을 주는 것은 매우 세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성령님과 지혜의 충만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절 “우리는 오직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역은 조정될 것인데, 평판이 좋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일곱 집사들에 의해 돌보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즉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입니다. 5절 “**이에 온 무리가 이 말에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발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를 선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내가 사도행전에서 여기와 나중 13 장 양쪽을 노트했는데, 이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저 노트해 두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어떤 가르침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며, 단지 표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딤후 5:22 에서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 뒤 안수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적일 뿐, 그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곱 사람들 모두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히브리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헬라주의자들이었고, 그러나 유대 문화를 가졌으며, 그들의 과부들이 공평한 나눔을 갖지 못했다고 하여 불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지명한 이 일곱 사람들은 헬라의 이름, 혹은 그리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헬라의 유대 문화에서 나온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하나님은 교회에 수를 크게 늘리셨습니다. 이것은 잘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일곱 사람들은 과업을 위해 선택되었는데, 이 과업이란 것이 천한 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역을 위해, 또는 그 보다 더 큰 것에 야망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음, 당신이 알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느끼고 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그들은 여기 있는 나를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빌리 그래함은 이 무대에서 지나가고 있을 것인데, 틀림없이 그들은 그의 자리를 취할 사람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에, 당신이 알지만, 왜 내가 여기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곳, 어디서나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도록 하겠다(마 25:23)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원칙과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아주 종종 나에게 와서 사역을 하고픈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역으로 부르신다고 그들이 느낀 것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보통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로서 주일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보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연히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그리스도인의 교육기관에 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발견하게 될 가장 위대한 훈련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조차 하나님의 진리에 흥미로워져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배움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3학년 학생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 누구와도 교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

하는데 기술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매우 용서하기를 잘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훈련장이 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항상 내가 배우는 가장 위대한 길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왜냐하면 가르치는 데는 매우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당신이 주려고 하는 자료를 10 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읽으면 오히려 매우 혼란스러운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각자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 하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고자 하는 것을 여러 번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신이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 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하여,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다음 두 개의 장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식탁을 떠는 일에 선택되었고, 이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가졌으며, 성령님과 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식탁을 떠는 일을 시작했고, 신실하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은 세워, 곧 다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당신의 무엇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도록 뜻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 보려고 한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 큰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나의 무엇인가가 나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나의 무엇인가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몸 안에서 부르심과 선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엡 4:11 에서 분명히 가르치기를,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치료의 은사를 가진 자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우리의 무엇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기를 바라고 부르신 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롬 12:2).

사람들이 세움을 입은 자들로 자신을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더러 보르네오 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대해 곧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 저런 원시인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고상한 일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처럼 말해지거나, 혹은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서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들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기를 바라고 부르신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고 부르신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만약 식탁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그것을 하십시오! 말이나 행위에 있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전 9:10; 고전 10:27; 골 3:17).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가슴과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함 나의 무엇이 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일 학교의 가르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결혼한 젊은 부부를 모든 것에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행하는 것보다 그 당시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결혼에 대해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아이도 가지지 않을 때 그들의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이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몇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모르는 지를 인정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다 둔 곳에서 신실하기 바랍니다. 장려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마다 만족해하고, 행복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기에, 바울은 빌 4:11 에서,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집의 청소원이 되도록 부르셨다면, 청소원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청소원들이 지금은 이 카운티의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여기에서 청소원으로 일할 때, 그것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게 행했는데, 아마 노래를 부르며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루를 청소하면서 찬양 테이프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곳마다 그가 신실하게 행한 결과입니다. 존재(있는 것)가(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식탁을 준비하도록 선택된 두 사람이 7 장과 8 장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곱 사람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데, 그들의 장래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도들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두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둔 곳에서 그들이 신

실하게 행한 후, 그들의 확장된 사역에 대해 진술하도록 각 장이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8 절 “스테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라.”** 이것이 8 장에서 불 빌립의 경우에도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탁을 준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갔던 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분발시킨 사람과 복음으로 향하는 사마리아인들, 전체의 사회를 분발시킨 사람들입니다. **9 절 “그 때에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곳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을 벌이니,”** **10 절 “스테반이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동료들, 훈련되어지고, 기술이 있는 대학생들은 그가 말하고 있던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영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11 절 “이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게하고,”** **12 절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로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와,”** **13 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되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14 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거늘,”** **15 절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을 똑바로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을 한, 그가 거기에 있었고, 이 고발의 전부는 그를 대항하여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고발로서, 실제로 그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말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가 앞뒤도 없이 말했던 이것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발 중에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들은 앞뒤 없이 취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리가 성립될 수 있도록 거짓 증거를 가지고, 종교회의 앞에 왔습니다.

**7 장 1 절 “그 때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말이 사실이나? 하니,” 2 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들으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람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3 절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4 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람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서 나라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지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땅, 나중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려는 땅으로 여행하는 것 등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나라의 기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메시야가 올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야만 하셨습니다. **5 절 “그러나 그 분께서는 이 땅 안에서 그에게 밭 디딜 만큼의 상속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던 그와 그 뒤를 이을 씨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은 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북, 남, 동, 서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와 네 뒤를 이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씨가 이 낯선 땅에 머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6 절 “하나님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또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 학대하리라 하시고,” 7 절 “또 이르시되 그들을 종으로 삼을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 절 “또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사를 낳아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족장을 낳으니라.” 9 절 “그러나 이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로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10 절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눈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주관하는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11 절 “그 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였으나,” 12 절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함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 절 “또 두 번째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지게 되니라.” 14 절 “이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일흔 다섯 혼을 불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사백 년 동안 낯선 땅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종으로 삼으나, 내가 찾아가 그들을 꺼내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팔렸을 때, 한 순간 그는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는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그곳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 가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왔을 때, 마침내 두 번째에 그는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으므로, 요셉의 단에 다른 단들이 절을 했다는 어릴 때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므로 이집트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한 곳에는 그것을 70 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창 46:26-27), 이곳에는 75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5 명을 말한 것은 그 땅에 있었던 요셉의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일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야곱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70 명이고, 그곳에 이미 있던 요셉의 가족이 그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여기서 75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거기서 파라오의 계승자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파라오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은 죽이라는 칙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테반이 역사를 다시 살피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은 그들의 유산에 대한 자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존경했기에, 항상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그들을 화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스럽게 꾸미려고 했지만, 그들이 성스럽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지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이리쉬(the Irish)와 연관된다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은 항상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악마처럼 살았을 수 있지만, 그들이 죽을 때는, 항상 그들에게 있는 성스러운 면만을 생각하려고 하니, 이스라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 생각할 것 같으면, 항상 성스러운 관계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의 조상들이 전혀 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둬 거둬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변명에서, 내가 확신하지만, 그의 논쟁의 명석함은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눅 12:11 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정관들과 왕들 앞에 끌려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라, 그 때를 위해 성령님께서 너희가 말할 말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스테반이 공회에서 발표하는 논쟁에서 지금 성령님에 의해 그가 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셉까지 이야기를 가져와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처음에 곡식의 단에 관한 꿈을 그들에게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 국가의 아버지들, 즉 위대한 족장들인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한 존경을 보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곡식 단이 그의 곡식 단에게 절하는 것과 태양과 달과 열한 개의 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할 만큼 질투가 나게 하고,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한 형제, 르우벤이 다소 중재를 해서, 웅덩이에 집어넣자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떠나면 나중에 돌아와서 그를 끄집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를 굶어 죽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 그 웅덩이 안에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고, 그들의 형제를 몇 푼에 팔아 치울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은 스무 개에 팔았습니다. 왜? 그 이유는 그가 자기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가 통치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두 번째에서 그가 자신을 나타내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형이 있지요!

자, 더 일찍이 베드로는 같은 공회에서 변명할 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음에 내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로서, 머리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지 못하여, 그들은 그 분을 죽음에 내어 주었으나, 두 번째는 주님으로서 그 분을 인식했습니다. 그 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언어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다 놓쳤으나, 두 번째에는 그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압박하고 있었을 때, 그들 모두는 그에게 절을 했고, 그의 꿈을 기억하게 되었으나, 그는 만족해하여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명석한 스테반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모든 대언자들을 어떻게 거절했는지에 대해 직접 그들에게 그것을 둘 때까지 이 개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대언자들이 말했던 자, 예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얼마나 더 나쁜지를 밝히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7 장을 공부해 보면, 스테반의 명석한 변명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7 장을 다 마치면서 스테반의 명석한 변명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공부할 때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은 마치 신념을 가진 사람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신념에 차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 주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시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마음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처음 반응은 부정적이거나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파악하자, 그의 마음에 모든 것이 분명히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태어나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계속 7 장을 읽고, 다음 시간에 이 독특한 장의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시는 대로 중요할 것 같지 않는 이곳에조차 더 풍성하게 단장하시기 위해, 별로 용모가 빼어나지도 못한 지체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 중에 어떤 것은, 주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들은 진짜 많은 찬양과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주님, 당신이 우리 되게 하려고 부르셨고, 우리 앞에 정해 놓으신 것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더 큰 기회를 열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작은 일조차, 우리에게 하도록 기회를 주신 무엇이든시간에 당신을 섬기는데 만족과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